

나주 텃밭에 심은 '통일의 꿈'



광주에 거주하는 탈북학생과 일반학생들이 지난 29일 나주시 노안면 유곡리에 조성된 '통일 염원 텃밭'을 일구며 작물 재배를 위한 기초 작업을 하고 있다. '백두대간 수업연구회'가 마련한 '통일 염원 텃밭'은 옥수수, 오이, 호박, 토마토, 땅콩 등 친환경 채소로 가득 채워질 계획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교육청 '백두대간 수업연구회' 농산물 체험 활동

탈북 학생 정착 지원... 일반 학생들과 고추 등 심으며 소통

“북한에서 온 학생들과 통일텃밭을 일구기로 했는데, 처음엔 걱정이 앞섰어요. ‘친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나고보니 재밌어요. 말도 잘하고 장난도 치고 씩씩 싸우고, 그냥 친구더라고요.”

‘통일 염원 텃밭 가꾸기’에 참여한 정광고등학교 1학년 현대영(17) 군은 북한에서 온 친구가 생겼다고 좋아했다. 현 군은 “탈북 학생들에게 가졌던 부정적 선입견이 통일텃밭을 함께 일구면서 눈 녹듯 사라졌다”고 말했다.

지난 29일 나주시 노안면 유곡리에 조성된 '통일 염원 텃밭'에서는 광주지역 탈북학생들과 일반학생들의 만남이 이뤄졌

다. 광주시교육청이 운영하는 '백두대간 수업연구회'가 계획한 통일 염원 텃밭 가꾸기는 농산물 수확 등 체험활동을 통해 탈북학생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광주에는 탈북학생이 82명 있다. 지난 2011년 37명이었는데 5년 사이에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광주에는 북한에서 직접 온 학생들보다는 중국이나 제3국 출신 탈북학생이 68.3%(초 72%, 중 71%, 고 45%)로 더 많다. 아직 등록되지 않은 학생까지 포함하면 탈북학생은 1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도교사와 탈북학생, 일반학생 등 30

여명은 이날 '통일 염원 텃밭'에 고추, 호박, 토마토, 오이, 땅콩 등을 심었다. 이들 학생은 손수 텃밭을 가꾸는 과정을 통해 자연과 만나고 서로 협동하면서 통일의 길을 만들어갔다.

중국에서 2년 전 건너온 탈북학생 왕영복(13)군은 “처음에는 텃밭에 오기 싫은 마음도 있었지만 형들이 땅을 흘리면서 텃밭을 일구고 누나들도 쪼그려앉아 모종을 심는 것을 보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며 “형들이 일을 너무 잘해서 밭에 물주는 일 밖에 할 것이 없었다”고 아쉬워했다. 왕 군은 이어 “다음에도 또 오고 싶다”며 “오늘 심은 토마토가 빨리 자라서 다음에 왔을 때는 직접 따 먹고 싶다”고 덧붙였다.

지도교사와 학생들은 행사를 통해 멘토링 관계를 맺었으며, 탈북학생들과 일반 학생들은 텃밭을 매개로 소통의 기회를 만들었다. 일반학생들은 이번 만남을 통

해 ‘탈북학생들이 어둡고 낮을 많이 가릴 것’이라는 편견을 깨뜨릴 수 있었다. 탈북 학생들도 일반학생들에게 다가가 마음을 열고 함께 하는 등 짧은 시간 동안 자연스럽게 친해졌다.

오전 중 통일 염원 텃밭 조성 및 농작물 심기를 마친 학생들은 오후엔 바베큐 파티를 열고 직접 수확한 쌈 채소에 삼겹살을 써서 먹으며 만남의 장을 이어갔다.

광주 정광고 2학년 권문경(18)양은 “탈북학생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텃밭도 함께 일군 의미 있는 하루였다”고 말했다.

백두대간수업연구회 회장 정병수(49) 정광고 교사는 “탈북학생들은 정착 초기에는 이런 저런 어려움으로 학교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한다”며 “이런 학생들을 통일 텃밭에 참여시켜 성공적인 정착을 돕는 것이 바로 통일에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한영기자 young@

황금연휴 '들뜸' 주의... 빈집 단속·졸음운전 조심

완도 선착장 추락 고교생 구조...무안 2인조 절도범 구속

지난 29일 밤 9시50분께 완도군 보길도 선착장에서 강모(19)군이 바다에 빠져 허우적댔다. 다행히 주민이 발견, 여수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부산에 사는 강군은 황금연휴에 친구 3명과 함께 보길도로 여행을 왔다가 선착장에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안경찰은 최근 농사철 빈집을 대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김모(24)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김씨 등은 지난 3월5일부터 최근까지 무안군 해제면 일대 빈집에 침입해 모두 22차례에 걸쳐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완도경찰도 어촌마을 빈집을 대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최모(28) 씨를 구속했다.

황금연휴를 맞아 집을 비우고 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많다. 들뜸 마음에 사건사고도 잇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광주경찰은 “즐거움 마음으로 나들이 하는 것은 좋지만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며 “모처럼 나들이에 들뜬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은 집을 비우는 경우 빈집털이범에 대비하고, 장거리 여행엔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특히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SNS(소셜네트워킹서비스)에 휴가일정을 올리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는 빈집털이범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운전 중 피곤함이 느껴진다면 휴게소나 졸음쉼터를 이용해 충분히 쉬 뒤 운전하라고 조언했다.

지난 30일 오후 2시57분께 함평군 월야면의 한 교차로에서 정모(41)씨가 몰던 스포티지 승용차가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정씨의 아내 이모(·36)씨가 숨졌다. 정씨와 정씨의 어머니, 조카 등 3명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정씨가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추정하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행락철에는 많은 차량이 동시에 관광지에 집중되기 때문에 차량 정체가 심하고, 들뜬 기분에 서두를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확률도 높다”며 “평상시보다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전은재기자 ej6621@

때 이른 '초여름 날씨'

낮 최고 27도... 미세먼지 주의

황금연휴기간인 1일 광주 낮 최고기온이 29도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0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일 광주·전남지역은 중국 북동지방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겠다. 이날 광주·전남 아침 최저기온은 10도~15도, 낮 최고기온은 24도~29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게 나타나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일에는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으며 아침 최저기온은 11~14도, 낮 최고기온은 23~27도 분포를 보일 전망이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42 달뜨기 10:00
해질 19:18 달지기 --:--

마스크 행기세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다.

지역별 날씨 (°C)

광주	맑음	13/29	보성	맑음	9/28
목포	맑음	13/23	순천	맑음	14/28
여수	맑음	15/23	영광	맑음	10/27
나주	맑음	9/29	진도	구름 조금	11/24
완도	구름 조금	9/25	전주	맑음	12/28
구례	맑음	9/29	군산	맑음	11/25
강진	구름 조금	10/27	남원	맑음	9/28
해남	구름 조금	10/27	홍산도	구름 조금	11/21
장성	맑음	9/28			



바다 날씨

시해	남부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부	서~북서	0.5	동~남동	0.5
남해	남부	서~북서	0.5~1.5	동~남동	0.5~1.0
남해	서부	남서~서	0.5~1.0	북동~동	0.5~1.0
남해	서부	남서~서	1.0~2.0	북동~동	1.0~2.0
남해	서부	남서~서	1.0~2.0	남서~서	0.5~1.5

생활지수

☀️	관심
☀️	식중독
☀️	높음
☀️	자외선
☀️	보통
☀️	피부질환

주간 날씨

2(화)	3(수)	4(목)	5(금)	6(토)	7(일)	8(월)
☀️	☀️	☁️	☁️	☀️	☀️	☀️
12/24	12/28	15/25	16/23	12/24	12/24	12/23

광주·전남 오존경보제 시행

9월까지 5개월간...기침·폐기능 저하 등 피해 예방

광주시와 전남도가 1일부터 9월 30일 까지 5개월간 오존경보제를 시행한다. 오존경보제는 하절기에 대기 중의 오존 농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해 고농도 오존에 의한 도민의 생활환경상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것이다.

대기 중의 1시간 평균 오존농도가 0.120ppm 이상이면 주의보, 0.300ppm 이상이면 경보, 0.500ppm 이상이면 중대경보를 발령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고농도 오존 발생 시 통합메시징 시스템을 통해 해당 시·군·구와 언론기관, 교

육기관 등 유관기관에 경보상황을 신속하게 전송하고, 해당 시·군·구에서는 마을방송, 전광판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발령 상황을 전파한다.

오존은 대기 중 질소산화물과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강한 태양광선과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생성되는 강력한 산화제로, 바람이 거의 없는 날 고농도 오존에 발생하기 쉽다. 호흡기, 피부, 눈, 코와 같은 감각기관에 손상을 줘 두통, 기침, 눈 자극, 폐 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신갈나무 개엽 6년새 8일 빨라져

지구온난화에 평균기온 상승

국내 대표 수종인 신갈나무에서 새잎이 돌아오는 시기가 점점 앞당겨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봄에 새잎이 돋는 신갈나무의 개엽(開葉) 시기가 6년 전보다 8일 빨라졌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공단 국립공원연구원은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월출산국립공원에 서식하는 신갈나무(해발 480m 근각 중 2그루)의 봄철 개엽 시기를 조사하고 있는데, 올

해는 지난 26일 새 잎이 돌아난 사실을 확인했다. 6년 전인 지난 2011년 5월 4일 보다 8일 빨라진 것이다.

공단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온 상승에서 찾고 있다. 월출산과 인접한 강진군의 기상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 연평균기온이 13.1도에서 2016년에는 14.4도로 5년간 1.3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데다, 같은 기간 식물 생장이 활발해지는 4월 평균기온이 11.1도에서 14.2도로 3.1도 상승한 사실을 확인하면서다. /김형호기자 khh@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삼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시술 전

시술 후

시술 전

시술 후

대산 종합 인테리어 사업부

신축건물 설계시공 삼가인테리어 조립식건물
짐크시공 케뮤시공 판넬시공 렉산시공 데크시공
심크대 샷시 실내인테리어 아파트인테리어

광주 광역시 북구 증흥동 373-14번지 1층 광주역 뒤 증흥삼거리 부근

010-8628-0482